



Kanton Zürich
Bildungsdirektion
Volksschulamt

고국의 언어와 문화(HSK)

교과 과정 체계

수업의 기본 조건에 관한 설명 포함



목차

1 기본 교육과정의 목적	5
HSK 수업의 시발점에서 현재까지	5
2 개념과 토대	7
개념	7
지도이념	7
구조 및 구성	8
3 학습 및 강의의 이해	10
역량지향적 강의	10
역량지향적 평가	10
과제	11
강의 교재 및 자료	11
방법의 선택	12
수업의 중립성	12
4 교과 과정 «언어»	14
교과 영역에 대한 정의 및 목표	14
다국어 구사 교수법	15
역량별 세분화	15
5 교과 과정 «자연, 인간, 사회»	18
교과 영역에 대한 정의 및 목표	18
역량별 세분화	19
6 단계별 수업	23
제1단계	23
제2단계	24
제3단계	24
7 용어 해설	26
8 부록	
부록 I: 취리히주의 기본조건	32
부록 II: 단계 및 주제 - 개요	37
부록 III: 참고문헌	43

Impressum

Herausgeberin

Bildungsdirektion Kanton Zürich, Volksschulamt

Erarbeitet in Zusammenarbeit mit den HSK-Trägerschaften

Wissenschaftliche Beratung durch Dr. Ursula Ritzau, PH FHNW, und Prof. em. Dr. Dr. Basil Schader, PHZH

Gestaltung

raschle & partner
raschlepartner.ch

Übersetzung

Interserv AG

Kontakt

Volksschulamt, Abteilung Besondere Förderung
Sektor Interkulturelle Pädagogik
Walchestrasse 21
8090 Zürich
+41 43 259 53 61
ikp@vsa.zh.ch www.zh.ch/hsk

Die Orientierung an diesem Lehrplan wird auch in anderen Kantonen empfohlen: Basel-Landschaft, Basel-Stadt, Bern, Glarus, Luzern, Schaffhausen, St. Gallen und Thurgau.



Kanton Zürich
Gemeinnütziger Fonds

Finanzielle Unterstützung durch den gemeinnützigen Fonds des Kantons Zürich

Vollständig überarbeitete

4. Auflage 2023

© Bildungsdirektion Kanton Zürich

머리말

다문화와 다국적 역량을 장려하는 것은 학교의 주된 업무에 속한다. 고국의 언어와 문화(HSK)수업 또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초중등학교[Volksschule]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보완한다. 이 수업을 통해 2개 국어 또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제2언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그 밖에도 그들이 현재 속한 *생활 환경*과 출신 문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HSK 수업은 취리히주에서 출신 국가 및 민간 후원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이들은 50년 이상 교육부로부터 기술 및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2011년 취리히주 초중등학교 교육청[Volksschulamt]은 HSK 주관단체 및 기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하에 이 수업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이는 독일어권 스위스의 여러 다른 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목표는 개별 수업 제공자들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초중등학교[Volksschule]교육과정과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었다. 본 개정판은 기본 교육과정을 초중등학교 [Volksschule]의 교육과정 21 [Lehrplan 21]에 맞추므로써 교육 정책의 변화를 고려했다. 이와 동시에 본 개정판은 HSK 강사진 및 기획실, 기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용 및 언어 개선을 진행하였다.

본 출판물의 구성에 관하여

본 기본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교육과정 21[Lehrplan 21]에 기초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21[Lehrplan 21]의 개별 문단이 본 출판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 제1장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적, HSK 수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개념과 토대, 제 3장에서는 학습 및 강의의 이해에 대해 기술한다. 제 4장과 5장에서는 두 개의 교과 과정 «언어» 및 «자연, 인간, 사회»에 대해 다루는데, 이 때 가장 먼저 강의주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관련 역량 및 역량별 영역을 정의한다. 개별 단체 혹은 HSK 교사진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정한다. 설계한다. 따라서 제 6장은 단계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내용이 한정된다.

용어 해설(제7장)은 이전 기본 교육과정의 용어집에서 대부분 발췌해 왔다. 일부는 EDK 출판물 «고국의 언어와 문화 HSK 수업» (Anja Giudici, Regina Bühlmann 2014)의 용어집에 기반하여 수정하였다. 용어 해설에서는 본 문서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모든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HSK 수업에서 배우는 언어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있어 *제1언어*이며, 일부 아이들에게는 *제2언어*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HSK 수업 언어를 *제2언어*라 칭한다.

부록(제8장)에서는 취리히주 HSK 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의 안내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참고문헌과 더불어, 단계별로 가능한 주제에 대한 개요 역시 첨부하였다.



1 교과 과정 체계 목적

본 교과 과정은 HSK 수업의 목표를 2개 국어 또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의 현재의 필요성에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21[Lehrplan 21]에 맞춰진 내용이다. 이를 사용하는 데에는 총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기본 교육과정은 HSK 주관단체들이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 조율해 나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사용 목표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는 단체들은 이를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에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출신 국가의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경우 HSK 기본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과 호환되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한다. 모든 단체는 각각의 필요와 전체조건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의 개별 역량과 전문 분야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 수업은 2주에서 4주간 정도로, 학습자 그룹이 대부분 연령, 기본 지식, 수행 능력 면에서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은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부의 기본 교육과정은 HSK 주관단체가 수업 승인 신청을 했을 시 이를 검토하는 근거를 형성한다. 단체의 수업은 교육과정 및 수업이 본 기본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만약 출신국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과 HSK 기본 교육과정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만약 서로 호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승인 절차 기능을 통해 본 기본 교육과정은 HSK 수업을 승인받은 단체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때 기본 교육과정은 단체들이 자체 교육과정의 특정 목표 및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자신의 수업에 적용시키려 할 때의 기본 틀을 정의한다.

세 번째, 기본 교육과정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기본 교육과정은 주관단체, HSK 강사진, 지방 및 주 당국, 교육 기관에 HSK 수업의 조건, 목표, 내용 및 개념에 대한 공통의 토대를 제공한다.

본 기본 교육과정은 취리히주의 현황 및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과정 21 [Lehrplan 21]»은 취리히 교육과정 21[Zürcher Lehrplan 21]에 상응한다.

HSK 수업의 시발점에서 현재까지

최초의 HSK 수업은 1930년대 취리히주에서 이탈리아 정치 망명자들의 주도하에 탄생했다. 이탈리아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업의 수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다른 국가들의 학부모 단체 역시 유사한 수업을 개발했다. 그 후 점차 해당 출신 국가들은 그들 조직을 넘겨받았다. 교육위원회[Erziehungsrat](현재의 Bildungsrat)는 1966년 6월 21일에 이 주제에 대한 최초의 결의에서 이러한 수업을 실험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시행하도록 허락했다. 이는 우선 이탈리아어 수업에만 적용되었고, 이 또한 아직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는 시행될 수 없었다.

그 후 1972년 5월 16일의 결의에서 교육위원회[Erziehungsrat]는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 HSK 수업을 정규 수업 시간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결정권을 학교 공동체에 부여했다. 같은 해 스위스 주 교육부 장관 협의회[Schweizerische Konferenz der kantonalen Erziehungsdirektoren (EDK)]는 정규 수업 시간 내 두 개의 HSK 강의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1982년 이탈리아와 스페인 총영사관과 «취리히 주 외국인 학부모 협회 조정 단체»는 주 전체에서 HSK 수업을

학교 운영에 통합시킬 것과 HSK 점수를 성적표에 기재하도록 허락할 것을 교육위원회[Erziehungsrat]에 요청했다. 1983년 11월 8일의 결의에서 교육위원회[Erziehungsrat]는 이러한 요청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해당 수업을 실험적으로 허용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수업의 위상을 높여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업 제공자, 취리히 당국, 정규 학교 교사들은 보다 조직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HSK 전용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의 개발, 연수 프로그램, 시범 프로젝트). 8년의 시범 기간 끝에 «고국의 언어 및 문화 수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1992년 6월 11일 교육위원회[Erziehungsrat]에 의해 가결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수업을 취리히 초중등학교[Volksschule] 내에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한 처음으로 비정부 단체의 수업 승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5년 초중등학교 법[Volksschulgesetz]과 2006년 초중등학교 법령[Volksschulverordnung]에서 HSK 수업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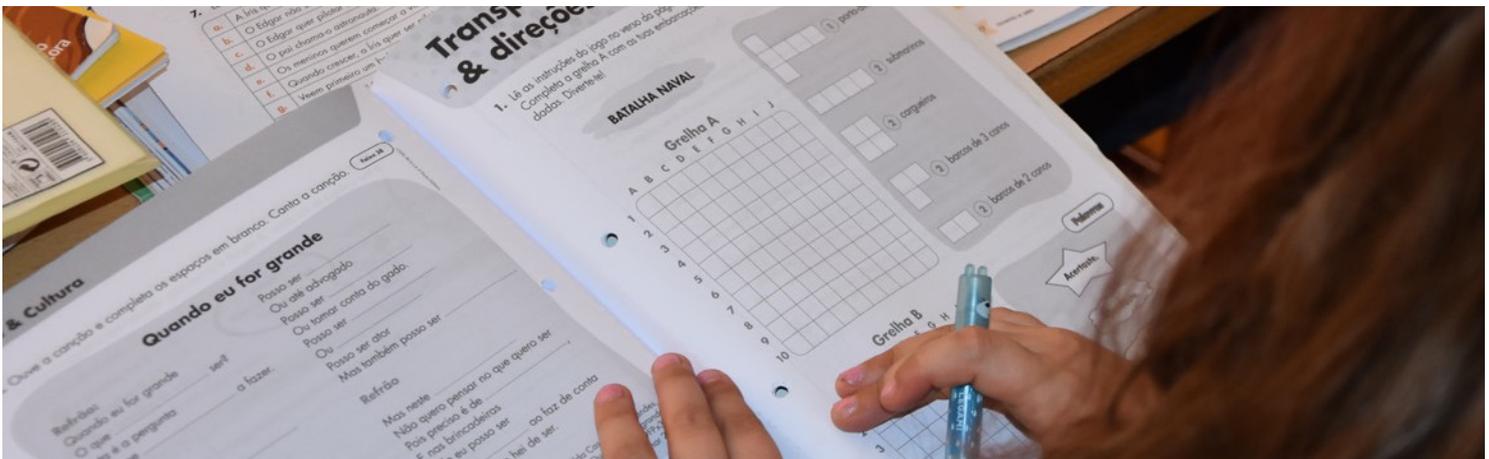
1980년대에만 해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외에 유고슬라비아,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만이 HSK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수업 제공자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오늘날에는 주에서 승인된 31개 언어의 HSK 수업이 제공되고 있다.

2009/10 학년도에는 처음으로 참여 학생 수가 10,000명을 넘어섰다. 수업 참가자의 비율은 언어별로 다르며, 언어 그룹의 규모, 주관단체의 조직 및 재정 상태, 출신 국가로부터의 지원 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좌우된다.

HSK 교육의 다양한 모습은 각 주관단체와 언어 공동체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교육적 이해, 이민이나 피난의 배경, 역사적 경험, 스위스에서 삶의 삶에 대한 관점 등과 연관이 있다.

본래 HSK 수업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학교에 (재)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배경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수업의 목표설정 또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주 일부의 학생들만 출신국으로 돌아갔기에, 수업의 목표는 1세대 및 2세대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 통합을 장려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통합이나 «귀국»이란 주제가 자신들에게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중국적 가족의 자녀들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든 학생에게 다국어 구사력 내지 해당 계층어를 장려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다국어 구사력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교육학의 실습과 연구에서 나온 인식이 수업에 스며들었다. 이를 장려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 취리히주에서 약 43%의 초중등학교[Volksschule] 학생들이 독일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구사하고 있다(취리히주 교육 통계, 2020년 기준). 다국어 구사력의 이러한 잠재력은 장려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2 개념과 토대

개념

고국의 언어와 문화 수업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독일어가 아닌 자신의 *계승어* 능력을 향상한다. 이는 *제1* 또는 *제2 언어*를 말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문화*, 자신의 *생활 환경*, 특히 그들 가족의 출신 지역의 *문화*, 역사, 문학, 지리, 전통에 대한 지식을 심화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과 대면하면서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이는 스위스나 출신국에 모두 해당한다. 그들은 수업을 통해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 면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고국의 언어 및 문화»라는 명칭의 의미가 부정확하지만 법적 근거와 관련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이 명칭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들의 *출신국*이 그들에게 있어 명확하고 유일한 고국인 경우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소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다양한 *생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도이념

- HSK 수업은 학생들의 연령, 선행 지식, 성과 수준에 맞춰 그들의 *계승어* 능력 계발을 장려한다.
- 본 수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교육과정 21[Lehrplan 21]이 «교육의 목표» 하위의 «토대» 장에서 학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가치와 일치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 > «학교는 정치, 종교, 신앙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 학교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 학교는 성평등을 장려한다.
 - > 학교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
 - > 학교는 사회정의, 민주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이해를 환기하고 장려한다.
 - > 학교는 특히 *문화*, 종교, 삶의 방식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
 - >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조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다양성을 건설적으로 다룬다.
 - > 학교는 다원적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에 공헌한다.»
- 본 수업은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이 학생들에게 있어 추가적인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자의식을 강화한다. 여기에서는 다국어 구사력을 사회적 재화로서 이해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본 수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소속감, *문화*, 전통, 역사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정치*/성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출신국*과 스위스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및 지식을 수집, 분석, 반영한다. 여기에는 가치관, 규범, 역사, 종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신앙으로 종교론이나 (정당)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가르침은 본 수업에서 명백히 제외된다.
- 본 수업은 학생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과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판단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장려한다.

- 본 수업은 *이민 배경*을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초중등학교[Volksschule]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수업은 학생들이 스위스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국*에서도 미래의 직업교육이나 직업에서 *다국어 구사력* 및 *다문화적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확립한다.
- 본 수업은 학생들이 스위스 및 *출신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지원한다.
- 본 수업은 학생들이 그들의 연령대에 맞는 미디어 및 문학을 그들의 *계승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수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험 및 흥미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관심사를 환기시킨다. 가능한 한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특히 수업 중 전자 매체의 사용 (*계승어*로 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언어 활동과 학습을 연결한다. 학습 단계 및 과제는 각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본 수업은 놀이적인 요소와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유치원에서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놀이적이어야 한다.
- 본 수업은 학생들이 특히나 다양한 언어 및 *생활 환경*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여러 가능성을 활용한다. 그리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수집하여 기본적인 교수법적 원칙으로서 비교법을 시도한다. 본 수업에서는 *계승어*와 독일어와의 비교, *방언*과 표준 독일어, *계승어의 표준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언어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양한 *생활 환경*들과 비교를 통해 공통점, 차이점,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구조 및 구성

HSK 기본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교육과정 21[Lehrplan 21]에 맞춰져 있고 그 구조 및 용어를 사용하므로, 교육과정 21 [Lehrplans 21]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개요» 및 «토대»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 단계 및 구조

교육과정 21 [Lehrplan 21]은 스위스의 11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총 세 주기로 나눈다. 제1단계는 유치원 2년과 초등학교[Primarschule] 첫 2년간(2학년 말까지)으로 구성된다. 제 2단계는 초등학교 [Primarschule] 4년간 (3~6학년까지), 제 3단계는 중등학교[Sekundarschule] 3년간 (7~9학년까지)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21 [Lehrplan 21]은 총 6개의 분야로 나뉜다 - 언어/수학/자연, 인간, 사회/디자인/음악/운동 및 스포츠. 각 분야별로 초중등학교 [Volksschule] 과정에서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는 *역량*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교육과정에는 또한 교양 과목«미디어와 전산학»과 «직업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ESD)이라는 지도 이념 아래 범학문적 역량(개인적, 사회적, 방법론적)과 범학문적 주제가 교과 영역과 교과목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통합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 역량 강화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각 전문 분야는 *역량별 영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예를 들어,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는 각각 «듣기», «말하기», «쓰기», «언어 탐구», «문학 탐구» (독일어), «문화 탐구»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의 영역으로 나뉜다. 각 *역량별 영역*에서는 다양한 *역량*의 종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각 역량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지식 및 능력을 축척하는 다양한 단계로 설명된다. 이러한 *역량 단계*는 각 역량들이 특정 기간 동안 지속해 습득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HSK 기본 교육과정: 구조 및 역량 구축

본 기본 교육과정에는 각 주기 및 역량 단계별로 습득해야 할 역량의 종류가 세분되어 있지 않다. HSK 강사진이 구체적으로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정 역량 및 해당 내용을 정의하는 것은 개별 HSK 주관단체들의 역할이다.

3 학습 및 수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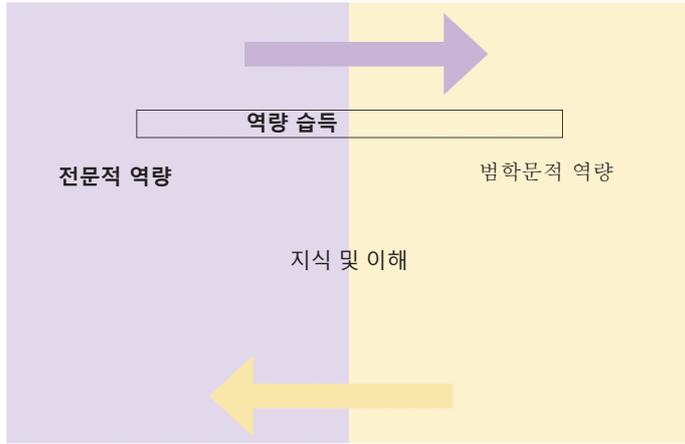


그림 1: 역량 습득 (교육과정 21 [Lehrplan 21]의 «학습 및 수업의 이해» 참조)

역량 지향적 강의

고국의 언어와 문화 수업은 교육 과정 21[Lehrplan 21]과 마찬가지로 역량 및 역량 습득에 그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학생들이 각 전문 분야 및 역량별 영역에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역량이란 기술, 능력, 지식과 준비성, 태도 및 자세와 같은 여러 내용 및 과정과 관련된 측면을 포함한다. 특히, 준비성 및 태도에서는 *문화 관련* 측면 외에도 자주적 학습, 협동심, 동기 부여 및 성과에 대한 의지에 대해 다룬다.

역량을 습득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능력과 범학문적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전문적 역량이란 특정 전문지식과 그것과 관련된 기술 및 능력을 말한다. 범학문적 역량이란 전체 학습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지식 및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개인적, 사회적, 방법론적 역량이 포함된다.

역량 지향적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역량을 습득 및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교수법적 방식으로 설계한다. HSK 강사진은 HSK 기본 교육과정 및 교재를 사용하여 어떤 역량 목표가 어떤 주제 및 내용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관련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및 강의 단위를 설계한다. 이때 강사진들은 학습 그룹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량 지향적 평가

역량 지향적 강의에는 역량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피드백 문화가 포함된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강의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학습과 역량 습득을 돕는다. 학생들은 형성 단계적(과정 동반: 다음 기회에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지적 조언), 총괄적(과정 마무리, 총결산), 그리고 예측적(미래지향적: 다음 학습 단계 또는 다음 학년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으로 평가받는다.

학생들은 2학년부턴 HSK 수업에서 그들의 성과와 실력 향상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공인된 HSK 수업의 교사들은 매 학기 말에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평가서에 입력한다. 해당 정규학교 담당 교사는 이 점수를 취리히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성적표에 옮겨 적는다. 유치원 아이들과 1학년 학생들은 점수를 받지 않지만, 학부모 면담을 통해 HSK 강사들은 그들 자녀의 학습 진척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범학문적 역량

점수는 HSK 수업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목표 역량치에 도달했는지와 실력 향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SK 강사는 또한 자발적으로 개별 역량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제1단원과 제2단원의 경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 탐구, 문학 탐구, ‘자연, 인간, 사회’. 제3단원의 경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 탐구, 문학 탐구, ‘자연과 기술’ / ‘경제, 노동, 가정’ / ‘공간, 시간, 사회’ / ‘종교, 문화, 윤리’.

점수는 주관단체 또는 그들 출신/국의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에 관한 평가이며, 본 기본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따른다. 점수는 과목의 성과 및 역량에 대한 평가이며, 태도, 성의, 시간 엄수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채점은 기본적으로 취리히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점수 등급을 따른다.

점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수업에서 성취한 총체적 성과를 평가한다. 이는 형식적 시험을 통한 성과뿐만 아니라, HSK 강사가 수업 중 관찰한 성과(예를 들어, 구두 발표, 학습 과정에 대한 관찰 등) 또한 반영한다. 그러므로 점수는 각 시험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물은 아니다.

만약 정규학교 교사가(특히, 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경우, HSK 강사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과제

과제는 강의 외의 시간에 학습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돕는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화형 과제나 놀이형 과제를 할 경우에는 부모의 계승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부모는 또한 자녀의 수업 학습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예를 들어, 학부모회나 학부모의 학교 방문과 같은 올바른 협력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HSK 강사는 과제를 부여할 때 학생의 연령 및 개인적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한다.

강의 교재 및 자료

강의 교재 및 자료는 HSK 단체들이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들은 학생들의 서로 다른 학습 능력 및 역량 목표, 특정 상황(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 이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기본 교육과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강의 자료(책, 문제집 등) 외에도 전자 매체(온라인 영화, 화상전화, 소셜 미디어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방법 선택

수업을 구성할 때 HSK 교사들은(교수법적 기본 원칙과 본 기본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 수업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역량 목표, 내용, 학생들 및 교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교사들은 직접적 지도, 발견 학습, 계획 활동, 프로젝트 수업, 학습파트너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학생 그룹이 각기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다양한 학급이나 학교에서 왔고, 연령대가 다르며, 각자 다른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고, 제1 언어나 제2 언어와 같은 언어 수준 또한 서로 다르다.

수업의 중립성

HSK 수업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지킨다. 수업은 다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며, 그 어떤 정치적, 민족주의적 이념 주입도 거부한다.

본 수업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검토한다(교육과정 21 [Lehrplan 21]의 «공간, 시간, 사회에 대한 교수법적 지침»참조)- 역사적 사실은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점 및 입장,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SK 수업에서는 종교를 다룰 때는 종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특정 신앙 고백 내지 종교적 행위의 실천이 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본 수업은 종교와 세계관에 대한 편견 없고 개방적인 태도 및 비차별적 접근을 장려한다(교육과정 21 [Lehrplan 21]의 «윤리, 종교, 공동체에 대한 교수법적 지침»참조).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가가 내용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역사적으로 내재할 때 수업의 중립성은 충족된다. 반면, 수업 전 그 국가를 매번 제창하고, 의도적으로 국가적 자부심을 구축하듯 일방적인 국가 정체성을 장려하려 들 때 수업의 중립성은 침해된다.



4 교과 영역 «언어»

정의 및 목표

표준어 및 언어 성찰

HSK 수업은 가급적 해당 언어의 표준어로 시행된다. 이것이 아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방언* 내지 독일어를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개인마다 매우 다르며 *방언*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계승어 사전 지식을 참고해야 한다.

지역을 초월한 언어의 사용, 문자에 대한 접근성, 출신국의 문자 문화와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표준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문법 및 맞춤법의 전달, 연령대에 맞는 형태의 언어 반사 및 언어 비교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계승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고심해 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방언* 및 각 방언들의 차이점, 언어 발달,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독일어 및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언어들과의 구조적 차이점 및 유사성).

어휘 훈련 (구문 및 문장 패턴 등도 포함)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

학생들은 구어 및 문어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능한 한 자주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HSK 교사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제안 및 여러 기회를 고려한다. 강사는 엄선된 문학 본문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기존 미디어와 새 미디어가 제공하는 진정성 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글쓰기 기회를 통해 학생들 자신의 *계승어 표준어*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다양성

본 수업은 HSK 학생들의 계승어 역량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구어적 역량, 어휘 범위, *계승어*의 *표준어*에 대한 친숙도, 읽기 및 쓰기 경험, 문법 및 맞춤법 사용 능력 등에 해당한다. 교사는 이러한 다양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업 및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개별화 및 차별화한다.

언어 비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언어 조건에 따라) 독일어 내지 기타 외국어를 *계승어*와 비교함으로써 언어 이해 및 *언어* 인식을 확장해 나간다. 독일어 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기타 다른 외국어와 *계승어*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언어에 대한 방향성 및 안정감을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 비교 프로젝트는 정규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할 때 특히나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범학문적 역량 및 특정 분야별 전문적 언어 역량

학생들은 일상에 필요한 기초적인 *계승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및 학교에서의 인지 학습에 필수적인 범학문적 역량과 특정 분야별 전문적 언어 역량을 습득한다. 이러한 범학문적 언어 능력은 학생들이 복잡한 형상이나 추상적 사물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인과 관계를 인식하거나 스스로 텍스트를 구성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특정 분야별 언어 역량에는 특정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전문용어, 개념, 표현 등이 포함된다.

문자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일어 및 라틴 문자로 글을 배운다. 여기에 더해 HSK 수업에서 해당 학생들은 그들의 *계승어* 문자를 습득한다. 완전히 다른 문자를 배우는 경우, 양쪽 문자의 습득 과정은 대부분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과정을 서로 긴밀히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HSK 수업에서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또는 키릴 문자를 학습하는 경우, HSK 강사는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독일어 문자 교육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사는 또한 독일어 알파벳과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이중 언어 문자 학습), 해당 학생의 문자 학습 수준 및 학습 방법을 정규학교에 알린다. 가급적 해당 정규학교 담당 교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다국어 구사 교육론

HSK 수업은 정규학교의 언어 수업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이 목표가 아닌,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을 위한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은 «언어» 장의 교수법적 지침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별 영역 및 언어 면에서 다양각색의 고급 역량을 갖춘 풍부하고 역동적인 *퍼토리*를 추구한다. 언어를 학습할 때 학생들은 이미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다국어 구사 *퍼토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

다국어 구사 *퍼토리*는 여러 다른 영역(학교, 여가 시간, 가족 등)내에서나, 대화 상대, 문맥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다. 종종 그중 하나의 언어가 더 지배적으로 사용되며, 학생은 다른 언어보다 그 언어를 더 유창하게, 더 자주 구사하게 된다. 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배적인 언어는 바뀔 수 있다. 많은 경우,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계승어*나 가족의 언어가 우세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학생에게 독일어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어쩌면 독일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어 구사자는 자신의 언어와 언어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그들의 총체적 언어 *퍼토리*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언어를 구사한다.

*계승어*와(스위스식) 독일어 사이의 «언어 혼합»이 종종 관찰되는데, 이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두 언어 사이에서 불쑥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놀이 활동으로 유용할 수 있다(계승어 수업을 위한 자료 시리즈 중 «방언 및 표준어 다루기», IPE 센터, 취리히 교육 대학교 [Pädagogische Hochschule Zürich] 참조).

역량별 세분화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에 기술할 역량별 영역 및 역량들은 교육과정 21[Lehrplan 21]에서 인용한 것이다. 물론 이는 당연하게도 *계승어*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

특정 역량 및 해당 내용(각 단원 및 역량 단계별 세분화)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개별 HSK 주관단체들의 역할이다.

듣기

- 학생들은 듣기 자료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 학생들은 대화를 따라갈 수 있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 학생들은 들은 것으로부터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말하기

- 학생들은 억양, 발음 및 목소리 조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적절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 생산적인 어휘 및 문장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점차 *제승어*의 *표준어*에도 적용된다.
-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 학생들은 독백 상황(발표하기, 시 낭송 등)에서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 학생들은 그들의 말하는 태도, 발표 자세, 대화 태도를 돌아볼 수 있다.

읽기

- 학생들은 그들의 *제승어*로 읽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다.
 - 학생들은 연령대 및 조건에 알맞은 사실적 텍스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 학생들은 연령대 및 조건에 알맞은 문학적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그들의 읽기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신의 독서 습관과 관심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쓰기

- 학생들은 *제승어*를 사용해 그들의 연령대 및 조건에 알맞은 글을 쓸 수 있다. 여기에는 표준어의 실력 향상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문장 패턴의 광범위한 *퍼토리*와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다.
- 학생들은 다양한 텍스트 패턴을 익히고, 이것의 구조, 내용, 언어 및 형식을 각자의 글쓰기 목표에 맞춰 작문에 이용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은 (연령대에 알맞은 정보, 지침,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을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할 수 있다.
- 학생들은 (그들의 조건 및 연령대에 알맞게) 가급적 올바르게 공식적인 표준어로 글을 작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학생들은 그들의 글쓰기 과정 및 작문 결과물을 숙고하여, 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언어 탐구

- 학생들은 적절한 질문 및 과제를 통해 그들의 *계승어*에 대해 고심한다 (예를 들어, 문법적 성별, 복수 및 시제 형성, *방언*, 역사 등). 이때 독일어 및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사용하는 기타 외국어와의 비교는 *계승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 학생들은 언어의 사용 및 효과를 탐구한다.
- 학생들은 각 학년에 걸쳐 문법 및 맞춤법 지식을 쌓고 훈련해야 한다.

문학 탐구

- 학생들은 연령대에 맞는 출신 *문화*의 문학 텍스트 (동요, 노래 가사, 산문, 시, 구전문학 등)를 익힌다.
- 학생들은 문학 텍스트 및 이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학생들은 그들의 출신국의 문학 (역사, 위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및 *문화* 주제 관련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 학생들은 문학 작품이 미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 형식, 언어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을 경험하고 인식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문학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아간다.



5 교과 영역 «자연, 인간, 사회»

들어가기에 앞서

강의주제 ‘자연, 인간, 사회’는 총 네 가지 관점으로 구성된다 - ‘자연과 기술’ / ‘경제, 노동, 가정’ / ‘공간, 시간, 사회’ / ‘종교, 문화, 윤리’.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이 하나의 강의 주제로 통합된다. 따라서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의 모든 교과 영역과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교과 과정을 통틀어 ‘자연, 인간, 사회’로 표시한다. 반면, 제3단계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이 각각의 특정 교과 영역수업으로 다뤄진다.

정의 및 목표

학생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때론 타협을 협상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간다. 그것이 다양한 출신 지역, *방언*, 언어, 종교 간의 비교이 , 출신국과 스위스, 또는 출신국과 여타 다른 나라와의 비교이든 간에, 편견 없이 비교해 보는 것은 이러한 *다문화적*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수업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장려한다. 이때 비교를 통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학생이 특정 종교, 민족, 언어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HSK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민 가정이나 *다국어*를 구사하는 가정에서 온 *2개 국어* 또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상황과 마주한다. 그들은 학습 그룹 내에서 유대감을 느끼며 동일한 *계승어*를 경험한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개인적 경험 및 출신국과의 관계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은 같은 출신국 내에서의 종교적 소속감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언어(*방언*, *다국어 구사력*)의 차이, 지역적 지리의 차이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수업은 스위스와 출신국의 가치관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규범 체계를 통합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의식을 강화한다.

본 수업은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심화한다. 이때 구체적인 기회나 이벤트를 통해 문화 사이의 공통 접점을 발견하고 서로 비교가 가능해진다.

본 수업은 이민을 오고 가는 데서 생겨난 경험들과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출신국의 역사와 지리를 예문 등에서 접하게 된다. 이는 출신국과 스위스에서 오늘날의 삶에 대한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학생들은 전문 수업에서 지식의 기반이자, 동시에 그들의 언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습득한다. 교사는 높은 수준의 언어적 인식이 필요하며, 각 수업에 필요한 유용한 구절 및 전문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역량별 세분화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역량들은 특히 HSK 수업에 부합하며 그에 맞춰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HSK 수업의 특수성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이 역량들의 기본 원칙은 교육과정 21[Lehrplans 21]에서 역량에 대해 명시한 부분과 유사하며, 아래 목록의 특정 HSK 수업 교육은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특정 역량 설명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강의주제 ‘자연, 인간, 사회’(제 1 및 2주기)에 대해 추가로 다루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3단계 교과 영역인 ‘종교, 문화, 윤리’, ‘공간, 시간, 사회’, ‘경제, 노동, 가정’, 또한,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자연과 기술’에 대해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강의주제 ‘언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 역량들을 학교 의무교육 기간 동안 습득해야 한다.

자연, 인간, 사회 - 종교, 문화, 윤리

- 학생들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인지하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점검한다.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10: «공동체와 사회 - 공동체 생활의 형성 및 참여»

종교,문화,윤리.5: «나와 공동체 - 삶과 공동체 생활의 형성»

- 학생들은 그들의 출신국과 스위스의 다양한 생활 환경과 군세계 대면하여 이에 대한 열린 자세를 발전시킨다. 그들은 다채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그들의 소속감을 반영하여 이를 그들의 인격 형성에 통합시킬 수 있다. 간혹 어느 한쪽에 더 충실해야 할지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를 다루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
- 학생들은 타인과 공존하는 데 있어 상호 배려 및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러한 규칙이 바뀔 수 있고, 또 실제로 바뀌는 가치관 및 규범들에 기인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다.
- 학생들은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개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출신국과 스위스의 중요한 가치척도 및 전통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이 무엇에 좌우되는지를 고찰한다. 그들은 출신국과 스위스의 중요한 가치척도 및 전통들을 이해하고 이를 고찰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의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에 상응하는 어휘를 *제수어*로 아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들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개인적 인식, 욕구, 관심, 요구를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해야 한다.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1: «기본 경험, 가치 및 규범의 탐색과 반영»

종교·문화·윤리 1: «실존적 기본 경험의 반영»

종교·문화·윤리 2: «가치 및 규범의 해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

- 가족, 우정, 학교, 출신국, 자기 민족, 종교 단체들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의식적으로 마주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채로운 사회적 관계 및 상호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들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그들의 출신국과 친숙해 진다.
학생들은 출신국 및 스위스의 다양한 인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편견 없이 만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편견을 인식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다룰 줄 알게 된다.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2: «종교와 세계관과의 만남»

종교·문화·윤리 3: «종교가 문화 및 사회에 남긴 흔적과 영향 인식하기»

종교·문화·윤리 4.4: «종교와 세계관 다루기»

자연, 인간, 사회 - 공간, 시간, 사회

-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내용을 통해 출신국에 대한 지식이 넓어진다. 이에 해당되는 기본적 지식을 통해 학생들이 이를 보다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도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또한 학생들이 출신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들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통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들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문제들을 다루며, 그것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삶의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7: «인간의 생활 방식 및 생활 공간의 이해와 비교»

공간·시간·사회 2: «생활 방식 및 생활 공간의 특성»

공간·시간·사회 3: «인간 - 환경의 관계 분석»

- 학생들은 자체 탐구 및 그림, 지도, 그 밖의 미디어(계승어로 된 웹사이트 등)의 도움과 스위스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출신국에 대한 보다 세분된 이미지를 얻게 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8: «인간은 공간을 사용한다 - 방향 찾기 및 공동 설계»

공간·시간·사회 4: «공간 안에서 방향 찾기»

- 학생들은 그들 출신국의 현재와 과거의 문화재를 접하고 이를 존중한다.
- 학생들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출신국의 역사와 현대로부터 도출된 사건, 발전, 확증을 분류할 수 있다. 이때 그들의 이민 역사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 학생들은 선별된 예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묘사가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심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9: «시간, 기간 및 변화의 이해 - 역사와 이야기를 구별하기»

공간·시간·사회 6: «세계 역사의 연속성과 변혁에 대한 설명»

공간·시간·사회 7: «역사문화의 분석 및 활용»

- 학생들은 사회에 참여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스스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된다.
- 학생들은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지향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0: «공동체와 사회 - 공동체 생활의 형성 및 참여»

공간·시간·사회 8: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이해와 활동»

자연, 인간, 사회 - 경제, 노동, 가사

- 학생들은 출신국의 삶과 노동의 형태를 논하며 이를 스위스와 비교하게 된다.
- 학생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6: «노동, 생산 및 소비 - 상황의 이해»

경제·노동·가정 1: «생산 및 노동 환경의 탐색»

경제·노동·가정 3: «소비의 형태»

자연, 인간, 사회 - 자연과 기술

- 학생들은 보편적 법칙의 관점에서 자연, 기술,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평가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연 및 기술과 관련된 주제의 예시를 다루며, 그들의 계승어로 해당 어휘를 확장한다.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2: «동물, 식물, 서식지의 탐색 및 보존»

자연·인간·사회 5: «기술 개발 및 구현의 이해, 평가, 그리고 응용»

자연과 기술 1: «자연 과학 및 기술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6 단계별 수업



그림 2: 발달 지향적 접근 및 전문 분야
(교육과정 21[Lehrplan 21]의 «제 1주기의 핵심» 및 «제 2주기의 핵심» 참조)

제2.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SK 기본 교육과정은 습득해야 할 역량이 각 주기 및 역량 단계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는 차이가 있다. 특정 단계별 역량 및 해당 내용을 정의하는 것은 HSK 주관단체들의 역할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개별 주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부분 역량은 마치 나선형처럼 세 단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 간다. 그러나 일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은 제1단계의 시작점이 아닌, 나중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서 역량 구축에 필요한 특정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역량들의 구축 과정은 제 3주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된다.

제1단계

제1단계 수업은 아동의 발달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수업 초반은 범학문적 방식으로 조직되고 구성된다. 이때 놀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육과정 21 [Lehrplan 21]에서 9가지의 발달 지향적 접근 방식은 제 1주기에서 아동의 발달 및 학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감각적인 경험 및 행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혹은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 또한 이들은 항상 연관관계 속에서 사물을 학습한다. 어린이들은 부수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배운 것들을 교사의 도움을 통해 개념으로서 파악하게 되고, 이를 명확한 지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계단 층에서 뛰다가 계단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점프 기술이나 두려움 또는 성취감 등의 감정도 함께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수업은 어린이들의 일상 체험에서 출발해야 하며, 스스로 행동하거나 경험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이미지와 생각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체험을 제공한다. 어휘력 신장을 위해 - 아이들의 생활 환경 외에도 - 공간 감각 (어디, 뒤, 위 등) 및 논리적 관계 (더, 덜, 똑같이 등)와 관련된 기능어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수업은 놀이적인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그림책 및 글의 세계와 친숙해지도록 한다. 이때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상징, 표시, 그림문자가 각각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배운다.

어린이들은 글과 문자의 기능을 인식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글의 소재를 목적에 맞게 통제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때 아이들 개개인의 조건에 맞춰 읽고 쓰는 것을 시작하도록 한다.

1학년과 2학년의 어린이들에게 있어 학습의 출발점은 가족, 출신국 및 스위스에서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이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강하며, 가족의 가치관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본 수업에서는 모든 언어의 영역이 장려된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탐구 및 문학 탐구. 이때 주로 놀이 형태의 학습 방법이 사용되는데, 일부에서는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훈련 방법이 적용된다. 또한, 읽기 및 쓰기 수업에는 독일어 알파벳 학습이 포함된다. 이때 HSK 교사와 정규학교 교사 간 협의 과정이 적극 권장된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HSK 강사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어 알파벳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제2단계

제 2주기의 어린이들에게는 같은 또래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활 환경에 대해 자연스런 관심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가족, 학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에 대해 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보통 자신들의 문화 및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이 없고, 열린 자세이며, 즉흥적이다. 또한, 출신국의 가족들과 맺는 관계 및 결속력에 흥미를 보인다.

본 수업에서는 모든 언어의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탐구 및 문학 탐구)이 장려된다. 특히, 까다롭고 복잡한 언어 사용역(speech registers)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단계

제3단계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 및 주위 환경의 가치관을 점차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가치 및 규범들을 외면하거나, 이를 이상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HSK 수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빈번히 의구심을 갖는다.

HSK 강사는 이러한 내적 변화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논하며, 다양한(삶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수업에 도입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강사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그들의 가치관 및 소속감을 자기 삶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업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능력 및 지식을 수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별한 다문화적·문화적 지식을 HSK 수업에서만 아니라,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수업 및 교외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 언어 관찰 및 미디어 교육은 본 수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년들은 습득한 역량을 다양한 언어(계승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 사용하고, 유사성을 도출해 내며, 그들의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언어 및 행동 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본 수업은 청소년들이 직업적 가능성을 계발하고, 직업 세계 및 스위스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 그리고 *다문화적 역량*을 추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7 용어 해설

아래의 용어 해설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다음 설명은 취리히주 교육부의 *고국의 언어와 문화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과 EDK 사무국이 발행한 *모국어 수업*에 기초한다.

2개 국어 상용

□ 제2 언어 참조

방언

방언이나 사투리란 표준어(예: 독일어)나 지역 언어(예: 스위스 독일어)가 지방 또는 지역에서 변형된 것을 말한다.

방언은 각각의 계승어의 표준어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지역의 현지 언어로서 기능한다.

제1언어(L1), 계승어

제1언어란 최초의 사회화 언어, 즉 시간순으로 봤을 때 맨 처음으로 배운 언어이다. 일상에서는 이를 «모국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많은 어린이는 최초로 한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나 그 이상의 언어를 배운다. 이러한 경우, 즉 한 사람이 여러 언어를 제1언어를 상용하면, 이를 동시적 이중 언어 구사(simultaneous bilingualism)라고 한다. 제1언어는 시간이 지나도 지배적 언어로 남을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제1언어가 수업 언어 및 현재 살고 있는 곳의 현지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계승어란 한 사람의 출신국 내지 출신 지역에서 현지어 또는 표준어로 간주하는 언어 또는 방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민 2세대 또는 3세대에 속할 경우, 그 사람의 계승어가 항상 제1언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어

전문어란 계승어 표준어의 한 변형이며, 전문적인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

외국어란 자신의 제1언어에 추가로 배우는 언어, 또한 그 언어가 현지 언어로 간주하지 않는 장소에서 배우는 언어이다. 따라서 외국어는 대상 언어 국가에서 습득하는 제2언어와는 다르다. 특정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공립학교의 과제 중 하나다. 스위스 주들의 공립학교는 대부분 다른 지역의 공식 언어 및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친다.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이란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여러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 역량은 균형을 이룬 다칭적 *다국어 구사력*과는 대조된다.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잘 훈련된 다양한 언어 역량의 기본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모든 기본 기술에서 항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특정 기술만을 습득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한편, 기능적 *다국어 구사력* 교육은 공립학교의 목표 중 하나이다.

출신국, 출신 국가

출신국이란 본인 또는 양육자 (또는 그 외 친척)가 이전에 살았거나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국과 맺는 관계의 깊이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민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준말

□ *계승어의 표준어 참조*

정체성, 이중·다중문화 정체성

(개인의)정체성이란 한 인간의 고유성과 그 개인의 자기 인식을 말한다. 정체성은 과정적이고 역동적이다. 정체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언어를 통해 형성된다. 이중/다중문화 정체성은 동시에 두 개의(혹은 여러 개의)다른 집단에 속하여, 그들의 가치 및 태도 중 일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통합

여기에서 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에서 동등하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특별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존중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역량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토대» 장에 있는 «역량»의 정의는 Franz E. Weinert의 설명에 기초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역량에는 «내용 및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 즉 능력, 기술, 지식과 준비성, 태도 및 자세도 포함된다. [...]역량의 양상은 전문적이며 범학문적인 성격을 띤다. 전문적 역량이란 특정 전문지식과 그것과 관련된 기술 및 능력을 말한다. 학제적 역량이란 분야 전반에 걸쳐 학교 안팎의 학습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지식 및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개인적, 사회적, 방법론적 역량이 포함된다.»

문화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문화를 한 사회나 민족 집단을 특징짓는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측면의 총체로서 바라본다. 이는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 인간의 기본 권리, 가치 체계, 전통,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다. 개인은 자신의 문화나 자기 민족 집단으로 축소될 수 없다. 즉, 개인이 어느 특정 문화에 속한다고 해서 그 문화의 특징, 특성이나 행동 방식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밖에도 한 사회 내지 한 민족 집단의 문화는 동질적이지 않고, 정적이지도 않으며, 완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문화적 관습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양산해 내고, 여러 다른 문화적 관행들은 서로 혼합된다.

생활 환경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환경을 인간이 그들의 현재 세계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 사건, 사실들의 총체로서 바라본다. 개인의 삶의 상황에 기반한, 하나의 생활환경은 전체 세계의 한 조각일 뿐이다.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와 생활 환경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두 번째 개념에서는 개인과 그 개인의 현재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그 개인의 행동 및 언어와의 관계를 더 강조한다.

현지 언어

현지 언어란 한 지역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다. 스위스의 경우, 현지 언어는 스위스식 독일어 *뵘언* 또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토로만어에 해당한다.

다국어 구사력, 다국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구사력이라는 개념은 세 개 이상의 언어 구사 능력이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개인과 관련될 수도 있고, 전체 사회와 관련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때때로 네 개의 공용어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각 언어들 (*제1언어*, *제2언어*, *제3언어*, *외국어*)에 대한 개인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에 대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 역량을 지닌, 다국어를 구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한 어린이가 독일어를 *제1언어*로 말하고, 여기에 추가로 두 개의 *외국어*를 말한다고 가정할 때, 그 어린이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 *2개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 참고.

모국어

모국어란 최초로 습득한 언어, 즉 *제1언어*를 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직 어머니만이 최초의 언어 습득을 결정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므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제1언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언어 인식(또는 Language Awareness)은 언어에 대한 명확한 지식, 언어에 대한 의식적 인식, 또한 언어 사용 및 학습 과정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언어 분리 내지 혼합, 언어 비교를 통한 메타언어 의사소통이 포함되며, 언어 비교의 예에는, *제1·2언어*간 비교, 또는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비교가 있다.



언어 인식의 교육적 목표에는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교실 안, 사회 안에서의)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존중, 마찬가지로 언어 및 상호작용에 대한 다각적 관점이 있다.

제2언어의 표준어

제2언어의 표준어란, 한 언어의 표준화된 버전이자, 사전 및 문법에서 성문화되고 구속력이 선언된 버전이다. 이는 때때로 문어, 문학 언어 또는 표준말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방언과 구별된다. 특정 상황 (예를 들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상생활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양층 언어 현상(Diglossia)이라 한다. 한편, 표준어의 숙달은 공립학교 및 HSK 수업의 주된 언어 교육 목표이다.

다문화적 역량, 다문화적 학습

다문화적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다문화적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촉진된다.

제2언어 (L2)

제2언어란, 시간순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익힌 언어를 말한다.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는 종종 사회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언어 공동체의 문자 문화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언어이며, 이 중 한 가지 예가 바로, 독일어권 스위스의 독일어이다. 제2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어와 구분된다. 한편, 사람들이 만약 이민 2세대나 3세대에 속할 경우, 현지 언어가 그들에게 있어 제1언어일 수도 있으며, 그들의 제2언어가 제2언어일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 제2언어가 그들에게 있어 지배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제2언어의 습득

언어 교수법에서는 제2언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을 구별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습득한 두 번째 언어가 그 지역의 현지 언어라면, 이는 제2언어의 습득에 해당한다. 이때 이를 위한 언어 수업은 별도의 전문 교수법으로 진행되며, 제1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교수법과는 차이가 있다.

2개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력, 2개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하는

넓은 의미로 볼 때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자란,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능동적 혹은 수동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좁은 의미의 정의를 사용한다 - 여기에서는 독일어 및 독일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제2언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만,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자라 칭한다.



8 부록

부록 I: 취리히주의 기본 조건

이 부록은 우선 HSK 수업의 각 주 차원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이어서, 취리히 초중등 교육청 [Volksschulamt]은 법적 조건 하에 주에서 개발된 실행 규정 (절차, 조직, 협력)에 대해 설명한다.

각 주의 법적 근거

스위스 주 교육부 장관 협의회[Konferenz der kantonalen Erziehungsdirektoren (EDK)]는 HSK 수업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다. 협의회는 1991년 10월 24일의 문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협의회는 이민 배경을 지닌 아동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고수할» 기본 권리를 강조한다. EDK는 해당 주 및 지역의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 HSK 수업을 적절한 형태로 지원하고, 가능한 한 최소 주 2회 이상 수업 시간에 통합하고,
- 필요한 학교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 정규 학교 교사와 HSK 강사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고,
- HSK 수업 출석과 필요한 경우 점수를 학교 성적표에 명시하고,
- 이민 출신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에 대해 알리고,
- 학생 평가, 상급학교 진학 및 선별 결정 시 HSK 수업에서 습득한 계승어 역량을 고려할 것.

EDK는 또한 2004년 HSK 수업에서 이민 배경을 지닌 어린이의 계승어를 장려하는 언어 수업 국가 전략을 기획했다(의무교육학교에서의 언어 수업 참조: EDK의 전략 및 전체 스위스 조정 통합을 위한 실행 계획, 2004년 3월 25일). 의무 교육학교의 조화에 관한 각 주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는 협약 가담 주들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HSK 수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의무교육학교의 조화에 관한 각 주들 사이의 협약(HarmoS) 참조, 2007년 6월 14일). 2011년부터 연방정부는 언어법[Sprachengesetz]의 틀 안에서 HSK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언어공동체 간의 공용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방법(언어법 [Sprachengesetz], SpG), 2007년 10월 5일, 마찬가지로, 언어공동체 간의 공용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법령(언어 법령 [Sprachenverordnung], SpV), 2010년 6월 4일자 참조).

취리히주의 법적 근거

취리히 주에서는 HSK 수업이 초중등학교 법[Volksschulgesetz]과 초중등학교 법령 [Volksschulverordnung]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학교 법 [Volksschulgesetz], 2005년 2월 7일

§ 15.

- 1 교육부는 학교 외부의 주관단체가 제공하는 고국의 언어와 문화 수업을 승인할 수 있다.
- 2 법령이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 및 그 절차를 규정한다.

초중등학교 법령 [Volksschulverordnung], 2006년 6월 28일

§ 13.

- 1 고국의 언어 및 문화 수업에서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제1언어 및 출신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장한다.
- 2 이 수업의 주최자는 출신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다. 교육부는 다른 주관단체가 제공하는 수업 또한 승인할 수 있다.
- 3 수업은 교육위원회 [Bildungsrat]가 제정한 기본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며,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한 승인한다. 이 수업은 주당 최대 4개의 강의로 구성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은 주당 최대 2개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 4 강사는 강의 자격 및 충분한 독일어 지식을 갖춰야 하며, 의무 연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14

- 1 수업은 가급적 정규학교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배정한다.
- 2 각 지역은
 - a. 가능한 한 적합한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 b. 만약 이 수업이 정규수업 시간과 겹칠 경우, 학생들을 주당 최대 2개의 강의까지 정규수업에서 면제해 주고,
 - c. 수업 운영에 결함이 있으면 교육부에 보고한다.
- 3 수업의 점수는 성적표에 기재한다.
- 4 교육부는 등록 절차를 정한다. 이 외에 수업의 조직 및 운영, 특히 재정관리 및 교사를 선택, 임용하고 관리하는 일은 주관단체의 업무이다.

취리히주 수업의 조직 및 운영

다음은 법적 조건하에 주에서 개발된 취리히주 HSK 실행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주제들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었다.

주관단체 승인

교육부는 법적 요건 및 내부 지침이 준수된 경우, 학교 외 주관단체의 HSK 수업을 승인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이 그러한 승인 절차를 규정 및 운영한다. 해당 언어에 대해 이미 승인된 HSK 수업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주관단체에 연락하여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목표는 각 언어에 대해 일관성 있고, 광범위하게 보장된 HSK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HSK 수업 승인을 위해 주관단체는 특히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 수업은 HSK 기본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 적절한 독일어 지식을 갖춘 자격 있는 HSK 강사를 보유해야 하고,
-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으며,
- 현지 학교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성적 증명서 및 성적표 기재

제3장 11페이지 참조.

감독

HSK 수업은 교육 및 인적 측면에서 주관단체의 감독하에 있다. 초중등학교 법령[Volksschulverordnung]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학교 운영 위원회[Schulpflegen]의 감독을 받는다.

출석 관리 및 수업에 태만한 학생들에 대해 가능한 조처하는 것은 주관단체의 책임이다. 주관단체는 학교 운영 위원회[Schulpflegen]가 요청할 시 수업 및 출결 사항의 열람을 승낙해야 한다. 또한, HSK 수업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정규수업을 면제시킨 초중등학교[Volksschule] 교사도 열람권이 있다.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그 문제를 관련된 강사들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교 운영 위원회[Schulpflegen]와 주관단체 간에 논의가 이루어진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 운영 위원회[Schulpflegen]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관단체로부터 문제가 된 수업을 초중등학교[Volksschule]에서 시행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재정

HSK 수업의 자금 조달은 주관단체의 책임이다. 일부 학교 공동체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직접 소수의 HSK 강사를 고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주관단체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HSK 강사진

HSK 강사의 선택 및 채용은 주관단체의 소관이다.

주관단체는 주에서 새롭게 수업 활동을 시작하는 HSK 강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충분한 교육적 자질(교사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또는 관련 경험 및 연수)을 갖춰야 하고,
- 충분한 독일어 구술 실력(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GER))의 B1 레벨 자격증 제시)을 검비해야 하고,
- 교육부(초중등 교육청 [Volksschulamt])가 주관하는 정보공유행사에 참석해야 하며,
- 교육부의 위탁으로 취리히 교육 대학교[Pädagogische Hochschule Zürich]에서 제공하는 입문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만에 하나 HSK 강사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주관단체에 시정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해당 HSK 교사로부터 주에서 승인받은 HSK 수업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HSK 교사가 현지 학교의 사정을 잘 알 경우, 이는 강사의 수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HSK 강사가 몇 년 후 바로 교체되지 않도록 주관단체에 권고한다 («로테이션 원칙»이 아닐 것).

정보 제공 및 등록 신청

개별 주관단체와 현지 학교 및 초중등 교육청 [Volksschulamt]은 해당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수업에 관하여 알린다. 학생들은 (해당 언어의 수업 여부에 따라) 유치원부터 또는 그 이후의 시점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Volksschule] 교사는 1월에 학부모에게 등록 신청서를 발송한다.

학부모는 자녀를 각 주관단체의 HSK 수업 책임자에게 직접 등록시킬 수 있다. 주관단체는 학부모에게 미리 구체적인 강의 정보(시간, 장소, 강사) 및 휴강 정보에 대해 직접 알린다. 수업은 보통 정규학교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 함께 시작된다. 등록 신청 후에는 규칙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학교 의무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유효하다.

수업 교재 및 자료

수업 교재의 조달은 주관단체의 책임이다.

HSK 강사들에게 수업용 기자재(복사기, 가능한 경우 빔프로젝터/시각화 도구, 컴퓨터, 인터넷 등) 및 기타 자료(분필, 공책, 종이 등)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 학교 공동체에 권장된다.

수업 시간 및 수업 공간

학생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주당 최대 2개의 수업, 그 이후 학년부터는 주당 최대 4개의 수업을 듣게 된다. HSK 수업은 가능한 한 정규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다(아침 8시-12시, 오후 1.30-오후 5시). 최대 2개의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학생은 정규 수업을 면제 받게 된다.

주관단체는 매년 봄 현지 학교 책임자에게 교실 공간에 대해 문의하고, 원하는 수업 시간을 알린다. 주관단체와 현지 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업 시간이 확정된다.

HSK 수업은 원칙적으로 공립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공간 안에서 시행되며, 가급적 학생의 거주지 근처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가능한 경우 학교 공동체는 적합한 교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HSK 강사는 학교 건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학년 초에 각 학교의 현지 책임자에게 수업의 최종 구성(클래스, 시간, 장소, 강사)에 대해 알린다. 또한 주관단체는 이러한 정보를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s]에도 보고하는데, 이를 통해 교육청은 HSK 수업을 알리고, 수업 편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HSK 강사진과 현지 학교 간 협력

초중등학교[Volksschule] 교사와 HSK 교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권장한다. 학교 운영진이 HSK 강사들을 학교 회의에 초청하여 서로에게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HSK 강사들을 기회가 닿으면, 예를 들어 해마다, 정보교환의 자리에 초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서로를 알아가고,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거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있다.

HSK 수업은 초중등학교[Volksschule]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HSK 강사가 학교 활동 및 학교 발전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혜택을 얻는다. 이는 개별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거나, 다국어 및 *다문화* 학습 프로젝트를 실현하거나, 함께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규학교 교사들, 제2 언어로서 독일어[Deutsch als Zweitsprache (DaZ)] 교사와 같은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HSK 교사는 *다문화적* 해석 및 증재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해 평가(학습평가, 학교 면담, 진로 결정 등)를 내릴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친 HSK 교사와 상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은 2개 국어 또는 다국어 구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하여 HSK 수업을 일종의 언어 장려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이를 현지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시킬 것을 권고한다.

학교 - 학부모 간 협력 지원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HSK 강사가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부모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알리며, 어떻게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학습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HSK 강사는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교사가 학부모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사는 학교 행사에 협력하거나 개별 상담을 통역할 수 있다. 이때 강사는 두 언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양쪽 학교 체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다문화적* 중재의 장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종류의 업무는 현지 학교 교사 및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학교 운영 위원회[Schulpflegen]와 협력

현지 학교 당국은 HSK 수업이 좋은 조건 아래 초중등학교[Volksschule]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체 또는 학교에서 수업 편성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권장한다. 담당자는 시간표 계획 및 공간 사용에 관한 조기 협의하고 협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주 차원의 협력 및 조정

교육부 측에서는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이 HSK 수업의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수업 제공자 측에서는 각 주관단체가 현지 및 주 차원의 편성과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과 협력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한다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개념적, 조직적 문제를 명확하게 하며, 교육적 측면이 논의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존재한다. 하나는 «HSK 협의회 [HSK Konferenz]»이고, 다른 하나는 «HSK 협의위원회[Ausschuss der HSK-Konferenz]»이다.

HSK 협의회[HSK Konferenz]에는 주관단체 및 정규조직(교사, 학교 운영진,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Deutsch als Zweitsprache (DaZ)]교사, 학교이사회에서 각 대표 한 명씩) 대표단이 출석한다. 또한, HSK 위원회[HSK Ausschuss] 회의에는 교육부의 위탁으로 HSK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는 취리히 교육대학교[Pädagogische Hochschule Zürich]도 참석한다. HSK 협의 위원회[Ausschuss der HSK-Konferenz]에는 HSK 주관단체의 선출 대표가 참여한다.

HSK 주관단체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에 보고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특정 질문에 답하고, 독일어로 번역된 교육과정 및 기타 추가 문서를 제출한다.

부록 III: 단계 및 주제 - 개요

아래의 주제 목록은 수업 계획 및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HSK 수업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본 주제 목록은 매우 많은 추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업 일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사는 이를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주제들 또한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일부이며, 초중등학교[Volksschule]의 정규 수업에서 다뤄진다. 각 주제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21[Lehrplans 21]의 역량 영역은 아래의 목록에서 참조할 수 있다.

주제

나와 타인 - 함께 살아가기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0](#) | [종교·문화·윤리 1](#) | [종교·문화·윤리 2](#) | [종교·문화·윤리 5](#)

제1단계

- 서로 알아가기; 인사하기, (서로) 소개하기
- 사교 형식과 예의범절;
유치원 / 학교: 규칙, 일정과 규범, 의례
-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경험하기; 우정; 싸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제2단계

- 다양한 집단과 문화: 같거나 다른 규칙과 가치, 상호 존중 및 상호 인정, 갈등과 해결 전략
-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만드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 성 역할: 소년 - 소녀
- 아동의 권리

제3단계

- 개인과 집단, 동질감과 이질감
- 소수와 다수의 공존: 인종차별, 현재의 논쟁과 사건
- 롤 모델과 이상: 스포츠계, 과학계, 문화계의 인물과 역사적 인물
- 동성과 이성과의 관계 (또한 문화 특성에 따른 기대치)
- 인권

주제

가족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0](#) | [종교·문화·윤리 2](#) | [종교·문화·윤리 5](#)

제1단계

- 나의 가족과 친척; 가정에서 규칙과 규범

제2단계

- 가정에서 가사와 과제 분담
- 내 가족의 역사: 세대와 족보
-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제3단계

- 가족 구성원의 역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문화적 차이
- 내 (자신의) 역할 이해
- 역사와 문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 및 형태
- 나만의 가치; 윤리

주제

놀이와 여가 시간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0](#) | [종교·문화·윤리 5](#)

제1단계

- 놀이: 같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놀이 도구로; 현대적이거나 전통적인 놀이 및 놀이 도구
- 여가와 취미
- 도구와 활동 수단

제 2주기

- 휴식 및 휴양
- 여가 시간 보내기; 스포츠; 또래 집단(peer group); 동아리
- 디지털 미디어 및 기타 미디어의 사용
- 광고

제 3주기

- 휴식 및 휴양
- 여가 시간 보내기; 청소년 모임; 청소년 문화(음악, 언어); 또래 집단 (peer group); 동아리
- 디지털 미디어 및 기타 미디어의 사용
- 광고

주제

주거, 동네와 도시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8](#) | [공간·시간·사회 3](#) | [공간·시간·사회 4](#)

제1단계

- 유치원 / 학교 환경
- 우리 집 / 우리 집과 주변 환경

제2단계

- 주택과 거주

제3단계

- 주거와 건축 양식; 역사적 발전

주제

축제, 풍속과 유행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7](#) | [공간·시간·사회 2](#)

제1단계

- 생일 및 그 외 다른 중요한 잔치, 다양한 종류의 잔치
- 옷과 상황에 따라 다른 옷차림

제2단계

- 다양하게 즐기는 축제; 종교적 전통
- 시대에 따른 패션의 변화; 직업 의상, 의상과 역할 / 지위, 브랜드 상품

제3단계

- 외출 문화와 파티
- 유행과 의례의 역사적 변화

주제

건강과 음식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1](#) | [자연과 기술 7](#)

제1단계

- 나와 인간의 신체: 각 기관, 내와 타인의 몸의 고결함; 오감
- 위생
- 의료
- 건강한 식사와 음료, 식습관

제2단계

- 건강과 질병; 건강한 생활 방식
- 식료품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철 야채와 과일

제3단계

- 스포츠; 중독
- 영양; 문화, 역사, 사회환경에 따른 다양한 음식 문화
-

주제

지리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8](#)

제1단계

- 어린이의 경험 세계에서 나온 지리적 명칭(거주지, 출신국, 스위스, 이웃 국가 등등); 공간 감각에 대한 개념
- 나의 출신국: 지리적 개요, 기후

제2단계

- 출신국의 주요 하천, 산, 도시

제3단계

- 출신국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

주제

자연과 기술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2](#) | [자연·인간·사회 3](#) | [자연·인간·사회 4](#) | [자연과 기술 1](#) | [자연과 기술 2](#) | [자연과 기술 8](#) | [자연과 기술 9](#)

제1단계

- 동물; 반려동물; 동물과 식물; 숲
- 과일과 야채; 4대 요소
- 계절과 자연의 변화
- 시간에 대한 개념(연, 월, 주, 일, 시간, 저녁, 점심, 어제, 오늘, 내일 등등), 시각
- 가정용 기기
- 어린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자전거,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등)

제2단계

- 동물의 종류와 식물의 종류
- 먹이 사슬
- 날씨와 일기예보
- 자연 보호, 자연재해
- 디지털 장난감과 통신 장치

제3단계

- 생태학, 환경 위기와 환경 보호(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현재 활발한 학문적 논쟁(동물 실험, 유전자 연구 등등)
- 디지털 장난감과 통신 장치

주제

문학과 예술

교육과정 21[Lehrplan 21]과의 연관성:

[언어](#)

제1단계

- 노래; 운율과 구절; 동화; 그림책
- 색; 영화
- 스스로 만들어 보고, 만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제2단계

- 이야기, 전설, 우화, 시; 상호문화도서관
- 영화

제3단계

- 고전과 현대 문학의 예들
- 영화
- 미술, 음악 및 기타 예술 분야; 예술가

주제

과거와 역사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9](#) | [공간·시간·사회 6](#) | [공간·시간·사회 7](#) | [공간·시간·사회 8](#) | [종교·문화·윤리 4](#)

제1단계

- «내가 어렸을 때»
- 예전 - 오늘의 차이점
- 출신국에서의 개인적 경험: 여행, 방학

제2단계

- 내 가족의 역사; 이민
- 출신국의 역사: 중요한 사건들, 건국 신화

제 3주기

- 나의 일대기 (예를 들어, 학습이나 언어와 관련하여)
- 현재 출신국의 사회적, 정치적 발전
- 종교 및 세계관
- 정치 교육 (특히, 선거와 투표)

주제

노동의 세계와 직업 교육

교육과정 21 [Lehrplan 21]과의 연관성:

[자연·인간·사회 6](#) | [경제·노동·가정 1](#) | [경제·노동·가정 2](#) | [경제·노동·가정 3](#)

제1단계

- 가까운 사람들의 직업;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직업 (식당, 경찰, 병원, 판매 등등)

제2단계

- 장래 희망; 다양한 직업 분야의 모범적 인물들
- 직업 교육과 노동의 의미

제3단계

- 스위스와 출신국에서의 직업 선택 및 직업 세계로의 진입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직업과 자격조건, 나라별 차이점
- 직업과 정체성; 자신의 언어적, 다문화적 역량의 활용; 성별 문제
- 경제: 다양한 부문, 역사적 발전, 실업, 노동조합

부록 III: 참고문헌

이 부록에는 본문에서 언급된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제1언어 지원 및 다국어 구사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 문헌 및 기타 자료는 초중등 교육청[Volksschulamt]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zh.ch/hsk>

국제 교육 개발학과(International Projects in Education), 취리히 교육 대학교[PH Zürich](2018): 계승어 수업을 위한 자료[Materialien für den herkunftssprachlichen Unterricht]; 방언과 표준어 다루기[Umgang mit Dialekt und Standardsprache], 취리히: 취리히 교육 대학교[Pädagogische Hochschule Zürich].

취리히주 교육부[Bildungsdirektion des Kantons Zürich](2017): 취리히주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Lehrplan für die Volksschule des Kantons Zürich].

Giudici, Anja und Bühlmann, Regina (2014): 고국의 언어와 문화 HSK 수업. 스위스의 모범 사례[Unterricht in Heimatlicher Sprache und Kultur HSK. Eine Auswahl guter Praxis in der Schweiz], 스위스 베른: EDK 사무국.



